

碩士學位論文

*Hard Times*에 나타난  
공리주의 교육 비판

指導教授 梁永洙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高敏淑

2002년 8월

# *Hard Times*에 나타난 공리주의 교육 비판

指導教授 梁 永 洙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2年 5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提出者 高 敏 淑



高敏淑의 教育學 석사학위논문을 認准함.

2002년 6월 일

審査委員長 \_\_\_\_\_ 印

潘 查 委 員 \_\_\_\_\_ 印

審 查 委 員 \_\_\_\_\_ 印

〈國文抄錄〉

*Hard Times*에 나타난 공리주의 교육 비판

高 敏 淑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指導教授 梁 永 洙

본 연구는 빅토리아조 영국사회의 지배논리였던 공리주의가 교육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Charles Dickens의 *Hard Times*를 읽으려는 시도이다.

특히 Dickens가 보여주고자 했던 바, 물질주의적인 공리주의 폐단을 대조적인 주인공들의 성격을 통해 고찰하였고, 이상적 대안으로 인간성 성찰을 바탕으로 하는 John Stuart Mill의 자유주의 사고와 휴머니즘사고를 제시하였다.

J. S. Mill은 Bentham이 인간을 오직 쾌락 추구의 동기에서만 움직이는 존재로 가정하고 인간적인 삶에 대한 최대 희망이 인간의 성격이나 기본적 욕구의 변화에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J. S. Mill은 자유가 존귀한 것은 쾌락을 증진시키거나 최대 다수의 최대희망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인격이 완전한 전체로 가장 조화롭게 발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J. S. Mill의 사고는 동시대인인 Dickens의 *Hard Times*에서 사회적 배

---

※ 본 논문은 2002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경과 인물들의 사고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발견되어지고 있다.

서론에서는 *Hard Times*에서 다루고자한 공리주의 교육의 문제점을 사회변화와 관련하여 제기했다.

본문 2장에서는 산업사회에서의 노동자 길들이기 교육이념을 살펴보고 가정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동들의 심성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3장에서는 어른들에 의한 공리주의 사고의 무조건적 주입이 Rouisa, Tom, Bitzer로 하여금 세상을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불완전한 인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순수한 인간성과 도덕성이 사라져버린 Coketown사회에 어둠을 밝히는 등대와 같은 존재로 Sissy와 서커스단을 등장시킨다. Dickens는 Sissy를 통해서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보여주고 있고 이는 J. S. Mill의 자유주의 사상과 맥을 같이 한다.



## 목 차

I. 서론 .....	1
II. 공리주의 입장에서 본 교육의 역할	
1. 산업주의의 노동자 길들이기 교육 .....	6
2.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	11
III. 공리주의 교육의 모순	
1. 순수성 상실: Rouisa .....	18
2. 도덕성 상실: Tom .....	23
3. 극단적 개인주의 및 물질주의 .....	25
IV. 자유주의적 사고에 의한 인간교육의 모색 .....	31
V. 결론 .....	37
참고문헌 .....	40
Abstract .....	43

## I. 서 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육의 역할은 산업사회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개인의 사회적 경쟁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이같은 교육은 학생들을 지나친 학습경쟁으로 몰아감으로서 개성과 감성능력이 결여된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승리자가 되게 하고, 물질적인 풍요가 곧 성공적인 삶의 지표이고 학교교육의 목적이라는 공리주의 인간관과 결부되고 있다. 이 같은 물질만능주의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은 산업혁명기 공리주의 교육의 모순에 대한 John Stuart Mill과 같은 소수 지식인들의 비판 가운데에 잘 나타나고 있다. 산업혁명기의 영국교육제도는 학교교육의 초보적인 단계로서 읽고 쓰기와 산수와 예절이라는 최소한의 능력향상을 통한 단순한 초등교육체계를 유지했다. 이는 기계화에 따른 대량생산에 필요한 노동자를 양산해 내기 위한 것이었지 지적, 감성적 교육을 받은 전인적 인간을 키워내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산업혁명기의 교육적 배경의 토대는 지나친 경제적 실리에 집착한 전반적인 사회구조에 기인한다. 산업혁명이전의 사회에서 농업이나 수공업에 바탕을 둔 전통적인 산업구조나 불완전한 과학기술과 이로부터 발생한 반복적인 경제기반의 붕괴나 기근과 같은 현상은 합리적 사고에 바탕을 둔 과학의 발달에 의해서 해소되었지만 이는 경제적 성공 지향의 사회풍토를 만들어 냄으로써 극심한 빈부격차, 인간소외, 감성의 결핍 등을 낳았다.

Thomas Carlyle이나 William Morris와 같은 사회개혁에 관심이 많은 작가들은 이러한 불평등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비판을 가하고 있다

Charles Dickens(1812-1870)의 *Hard Times*는 그 당시의 문제가 되었

던 물질만능주의 인간관과 공리주의 교육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그는 *Hard Times*에서 이런 문제를 개인이 아닌 집단의 차원에서 규명하고, 산업사회 교육의 문제점을 산업사회의 기본원리로서의 공리주의 이데올로기의 차원에서 분석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Peter Gaskell의 경우는 가장 시급하고도 근본적인 산업사회의 문제를 가난이나 공장 노동문제 또는 교육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가정의 이산, 가정의 와해. 인간의 심성을 고양된 천성에 연결시켜 주는 유대감의 붕괴”로 보았다.<sup>2)</sup>

Dickens의 산업사회에 대한 부정적 사고는 그 시대의 다수의 노동자들의 경험한 경제적 수탈감과 맥을 같이 한다. 그는 어린 시절 부친의 파산으로 인해 심한 굴욕감을 느꼈으며, 자서전의 한 부분에서 Dickens는 그 때를 “나는 지워버릴 수 없는 절망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때 수치를 느꼈고 매일 매일이 불행했다. 내가 배웠고 생각했고 기뻐했던 것과 상상과 경쟁을 키웠던 것들이 더 이상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리고 쓸 수도 없다.”<sup>3)</sup>라고 회상하였다. 노동자로서의 Dickens의 경험은 깊은 상처를 남겼으며, 그의 작품에 영향을 많이 끼쳤다. 그의 이러한 가정환경은, 산업혁명기에 자본가에게 착취당하는 공장노동자와 취학적령기에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아동에 대한 그의 뿌리깊은 동정심을 설명해주며, 우리는 Dickens 문학의 도처에서 작가의 집요한 계급의식을 발견할 수 있다.

19세기 초 사람들이 경험한 세계 최초의 산업사회로의 이행은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었다. 기계가 쏟아내는 엄청난 부의 분배를 둘러싼 공장주와 노동자간의 갈등 및 가부장적 수직사회가 수평적 계급사회로 바뀌면서 겪는 혼란 등은 노동 계급의 투쟁을 유발할 수밖에 없었다.

---

2) Jonatan Arac, *Commissioned Spirits: Dickens and Melville: The Shaping of Social Motion in Dickens, Carlyle, Melville, and Hawthorne*(New Brunswick, N. J. : Rutgers UP, 1979), p. 52.

3) John Forster, *The Life Charles Dickens*, Vol.II(London: Chapman and Hall, 1976), pp. 26-27.

이런 극심한 빈부격차와 중산층의 합리적 이기심의 사상적 토대는 Jeremy Bentham(1748-1832)의 이름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 공리주의였다. Bentham의 공리주의가 의미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은 이기적이며, 인간의 욕망은 오직 쾌락을 최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정신적 가치관이나 미의 세계를 무시하고 물질적 효용만을 우선시 하였다.<sup>4)</sup> 결국 공리주의 사상은 소수의 중산층을 위해 이용되어지면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았다.

이러한 사회적 영향 속에서 Dickens의 초기소설은 풍자와 낙관적인 확신성을 갖고 쓴데 반해, 물질문명의 병폐를 비판하는 Thomas Carlyle(1795-1881)의 영향을 받은 *Hard Times*와 같은 후기 작품에서는 공리주의에 의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해 심각하고도 절망에 가까운 어조로 바뀌어 나타난다.

Dickens는 *Hard Times*에 나타난 도시의 이미지 속에 담겨 있는 노동계급의 삶의 본질적인 위기를 당대의 교육제도와 관련시키고, 비인간적인 산업조직과 교육의 사상적 기초로서의 공리주의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시도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Dickens는 ‘빅토리아조 문명에 대한 포괄적인 비전’<sup>5)</sup>에 도달하게 된다.

Dickens의 소설을 열렬하게 탐독했던 당대의 독자들은 *Hard times*의 어느 등장인물에게서도 희화적 인물묘사에 의한 작가 특유의 활기를 느낄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소설을 실패작으로 치부했다. John Ruskin에 의하면, *Hard Times*는 Dickens 특유의 세심한 배경묘사와 긴 설명, 대화 등이 압축되어 있는 이례적인 작품이었고, 그 작품이 출판되었을 당시에는 그다지 일반독자와 비평가들의 호평을 얻지 못했다고 한다. Q. D. Leavis와 같은 비평가는 당시대인들을 풍자하려는 Dickens의 시도들

---

4) *Ibid.*, p. 104.

5) 김종철, 「『어려운 시절』의 민중성」, 『서구 리얼리즘 소설 연구』, 백낙청 엮음(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2), p. 31.

을 “ 무식하고 어설픈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글쓰기의 고통스러운 억측들”로 치부하고 있다.<sup>6)</sup>

이러한 평가에 대해 극적인 반론을 제기한 비평가가 F. R. Leavis이다. 그는 이 소설이 산업사회의 부정적 면모를 공리주의적 유용성을 중시한 당시대의 필연적 결과로 그려냄으로써 빅토리아시대의 인간성 파괴를 포괄적 비전으로 형상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한다.<sup>7)</sup> 비슷한 맥락에서 김종철 교수도 *Hard Times*에 나타나는 “삶의 역사적 성격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높이 사면서, 공리주의 이념에 의한 비인간화 현상을 문제시하고 Sissy 와 서커스단이 대변하는 민중의 생명력을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함으로써 작가의 문제의식이 극적인 갈등을 통해 돋보이는 작품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sup>8)</sup>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는 비평가들이 인정한 디킨즈의 공리주의 비판은 자유방임주의에서 한걸음 발전한 J. S. Mill의 자유사상과 연관되어진다. J. S. Mill은 Bentham이 인간성에 대한 분석가로는 성공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Bentham은 인간을 오직 쾌락 추구의 동기에서만 움직이는 존재로 가정하고 그러한 사례들을 열거하고 있으나, 이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들을 무시하고 심리학적 이기주의로 채색하고 있다는 것이다.<sup>9)</sup>

결국 J. S. Mill의 자유주의 사고는 감성능력은 결여되고 이성적 사고만 발달된 *Hard Times*의 주인공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는 생각에서 그가 지향하는 전인적 인간의 모습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 논문은 빅토리아조 영국사회의 지배논리였던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출발되었다. 특히 *Hard Times*에서 공리주의가 추구하는

---

6) John Richetti, *Columbia History of British Novel*, 영국소설학회, 『영국소설사』 (서울: 신아사, 2000), p. 115.

7) Richard J. Arneson, “Benthamite Utilitarianism and *Hard Times*.” *Philosophy and Literature* 2 (1978), pp. 60-75.

8) 김종철, pp. 115-153.

9) 황경식, 『사회정의의 철학적 기초』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5), p. 147.

자유주의적 인간관의 폐단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인간성 성찰에 바탕을 둔 휴머니즘적 사고가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 Ⅱ. 공리주의 입장에서 본 교육의 역할

### 1. 산업주의의 노동자 길들이기 교육

영국사회에서 산업혁명은 경제만이 아니라 거대한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수반하였다. 산업혁명의 직접적 결과인 경쟁과 시장경제, 대량 생산과 노동에 대한 감독과 통제는 점차 계급사회의 도래, 가족관계의 변화, 도시화, 상업과 금융업의 발달, 통신 및 운송의 혁명 등 더 넓은 의미의 변화로 이어졌다.<sup>10)</sup> 이러한 사회의 변동은 계급간의 갈등, 도시 빈민층의 증가, 환경문제 그리고 물질만능주의와 같은 부정적인 면을 노출하기 시작했다.

*Hard Times*에 나타난 Coketown의 황막한 도시의 모습은 공업화 사회에서 소외된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도시의 유형적인 면에서나 무형적인 면에서나 사실만 중시할 뿐이었다. M'Choakumchild 학교도, 디자인 학교도, 주인과 고용인 사이의 관계도 온통 사실 뿐이었으며 산부인과 병원과 공동묘지 사이에도 사실만이 지배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싸게 사서 가장 비싸게 파는 경제논리가 도시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 똑같은 일상적 일이 일어나고, '사실'만을 강조하는 교육은 노동자로 하여금 산업사회에 길들여진 삶을 살도록 강요하고 있다.

붉은 벽돌의 도시, 공장연기와 재가 만약 허락한다면 붉게 되었을 벽돌로 이루어진 도시였다. 그러나 사실은 야만인의 물감 칠한 얼굴처럼 부자연스런 붉음과 검정의 도시였다. 그것은 기계와 높은 굴뚝의 도시였는데 그 높다란 굴뚝으로부터 끊임없이 연기의 뱀이 영원히 영원히 기어나와서 결코 풀어지지 않았다. 도시 안에는 검은 운하가 하나 있었다.

---

10) 박지향, pp. 376-377.

창으로 꼭 찬 거대한 건물 더미가 있는데 거기서는 하루종일 덜컹거리고 덜덜 떠는 소리가 들리고, 우울한 광증에 사로잡힌 코끼리의 머리 같은 증기기관의 피스톤이 단조롭게 상하운동을 했다. 서로서로 똑같은 큰 길이 몇 개 있었고 한층 더 닳은 작은 거리가 많이 있었다. 그 거리에는 마찬가지로 꼭 닳은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포도에서 같은 소리를 내며 같은 일을 하기 위해 출퇴근하며 살고 있었다. 그들에게 매일은 언제나 내일과 꼭 같았고 매해는 작년이나 내년과 꼭 같았다.<sup>11)</sup>

Coketown의 이런 속성은 그 도시를 지탱하는 노동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Coketown에서는 “사실”이 이윤극대화에 의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목표로 조장되어 있지만, 이 곳의 지배자는 “Coketowners”인 Coketown의 중산층을 근거로 하는 자본가이다. 결국 도시를 지배하는 것은 공리주의적 사실이 아니라 Bounderby와 같은 추한 자본가에 의해 “사실”로 포장된 소수층의 이윤추구라는 절대목표이다.

Coketown을 지배하는 공리주의는, 정부가 개인의 경제활동에 개입하면 안 되고 가격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자동조절 된다는 자유방임주의의 원칙과 이론에서 근거를 찾는다. 그 시대의 민중은 자유방임주의를 “자유가 아니라 추잡한 사기”라고 여겼었는데 사실 여기서 내세우는 ‘자유’는 부르주아지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벌이 할 자유를 의미할 따름이지 하층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공리주의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하층계급에 필요한 “사실”의 주입으로 전락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결국 George Bernard Shaw의 말대로, 끔직한 것은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인 셈이다.<sup>12)</sup> 그러므로 공리주의에서 강조하는 ‘합리성’이란 산업주의의 경제적 합리성과 대응하며 아동의 인격적 성장보다 산업체계가 요구하는 지식 주입을 목적

---

11) Charles Dickens, *Hard Times*, eds., George Ford & Sylvere Monod(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90), p. 17. 앞으로 본문 인용은 이 책에 의하며 인용문 말미의 괄호 안에 페이지를 표시키로 함.

12) Raymond Williams, *From Dickens to Lawrence*(London: Paladin, 1974), p. 41.

으로 하는 교육과도 상응한다. 사물에 대해 기계적이고 강압적으로 사실만을 암기하는 교육은 산업현장과 생활현장의 획일성, 규칙성, 단순성만을 강조하고, 그 결과는 노동자의 소외, 부품화를 초래할 뿐이다.<sup>13)</sup> 학교 아동에 대한 Gradgrind의 태도는 공장노동자에 대한 Bounderby의 태도와 극히 유사한데 이들은 학생이나 노동자를 독자적인 인격체로 대접하지 않는다. Gradgrind가 살고 있는 저택인 Stone Lodge와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나 기계 사이에도 섬뜩한 획일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분업의 폐해를 국부론의 저자인 Adam Smith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그의 (부분노동자의-인용자) 변화 없는 생활의 단조로움은 자연히 그의 정신적 용기를 타락시킨다.. ..... 그것은 심지어 그의 육체적 정력까지도 파괴시키며, 그로 하여금 그가 익숙해져 있는 부분작업 이외의 어떤 일에서도 활기 있게 지속적으로 자기 힘을 사용할 수 없게 한다. 특수한 직업에서 그의 숙련은 이와 같이 지적, 사회적 그리고 용감한 자질들의 희생 위에서 얻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든 발전되고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이것이야말로 근로 빈민, 즉 국민 대다수가 필연적으로 빠져들게 되는 상태인 것이다.<sup>14)</sup>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영국의 근대국민교육제도의 본질은 철저히 부르주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산업자본주의가 발전, 성숙함에 따라 산업자본이 필요로 하는 일정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갖춘 새로운 노동력을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가에게 적대적인 노동운동에 대한 유화정책으로서 노동자의 계급의식을 흐리게 하여 소시민화 한다는 목적이 내재되어 있었다. 즉, 19세기 중반부터 후반에 걸쳐 산업자본의 성숙, 국내시장의 정비, 해외시장의 개척, 제국주의 경쟁의 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무교육, 문맹노동자가 아니라 철저

13) 김종철, p. 343.

14) 칼 마르크스, 『자본론-상』, 김수행 역(서울: 비봉출판사, 1989), pp. 456-466.

한 기초학력을 익히고 기계의 간단한 조작 기술을 익힌 노동자가 요구됨과 동시에 자본주의에 적대적인 계급의식에 감염되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다.

Owel은 Andrew Bell-Joseph Lancaster의 기계적 교육에 강한 불만을 품었다. 즉, 그것이 읽기, 쓰기, 셈하기의 기계적인 교육으로 일관되었을 뿐 가장 중요한 성격형성을 무시하였으며, 인간을 행복하게 하려는 안목을 결여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Bell박사의 제도이건 Lancaster씨의 제도이건 아동들에게 읽기, 쓰기, 셈하기, 재봉을 가르칠 수 있지만, 그들은 최악의 습관을 몸에 배게 하며, 그 정신을 평생 불합리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sup>15)</sup>고 비판했다.

전형적인 공리주의자라기보다 지나친 개인주의자인 Bounderby는 은행가, 상인, 공장주로서 부자였다. 그는 남을 유심히 바라보고 금속성 웃음소리를 낼 뿐 아니라 몸집과 목소리도 크다. 머리와 이마는 상당히 부풀었고, 관자놀이의 혈관도 팽창되어 있으며, 얼굴 피부도 팽팽히 당겨져서 두 눈을 부릅뜨게 하고 눈썹을 위로 치켜올릴 정도였다. 전체적으로 풍선처럼 부풀어 있는 모습은 그가 물질적으로 성공한 사람임을 과시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늦쇠로 된 트럼펫 같은 목소리로 자기의 옛적 무지와 가난을 항상 떠벌리고 다니는 그는 겸손을 가장한 폭한이었다. 그의 이런 외형적 모습은 내면적 세계의 발현이었다.

그의 교육적 관점은 실질적인 인간을 만드는 것이었고, 노동자에 대한 생각은 배부른 자본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조금이라도 불만을 품은 노동자의 유일하고 즉각적이며 직접적인 목적은 여섯 필의 말이 끄는 마차를 타기 원한다거나 황금수저를 갖고 거북스프와 사슴고기 먹기를 바라는 거라는 생각을 했다.

---

15) 히사오 야나기, 『교육사상사: 생활, 노동, 교육』, 임상희 역(서울: 백운서당, 1985), pp. 173-174.

19세기를 전후로 한 계급간의 불평등에 대한 개혁요구는 사회제도나 규범이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며 특정계급의 이해를 위한 것이라는 인식에 근거한 것이었다. 결국 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한 자선단체나 교육단체가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의 분수지키기를 가르치는데 주력했다는 결론이다. 주일을 경건하게 보내자는 취지의 주일예배 준수법(Sunday Observance Bill(1836))의 제정이 일요일 밖에는 여가시간이 없는 빈민계층을 만들어낼 뿐이라는 비판은 부르조와 계급이 노동자들의 의식을 지배하고자 한다는 당대의 사고를 반영하고 있다.

1740년대에 Wesley형제의 심령부흥운동에서 확산된 복음주의는 노동자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 또한 순종적인 노동계급을 만들어 내는 데에 기여했다. 국가나 교회로부터 소외당한 채 값싼 술로 몸과 마음을 망쳤던 노동자들에게 복음주의는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구원을 확신한다면 근면, 정직, 성실을 주요덕목으로 삼아 자조자립하여 가난을 극복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복음주의가 부여한 영적 자긍심을 바탕으로 노동자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채찍질하며 열심히 일하였고, 자기계발을 위해 초인적인 노력을 경주하기도 함으로써, 노동자 길들이기에 헌신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850년대에 오면 중산층의 이념이면서 노동계급의 이념적 지주의 역할을 하기도 했던 복음주의는 중산층의 이익을 지키는 방패막이가 되어버리고, 교회와 노동계급간에는 괴리가 생기게 된다.

노동자들의 탈교회화는 공리주의자들이 종교를 이용해서 근면하고 성실한 산업종사자를 만들고자 한 원래의 의도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자본주의자로 하여금 사회에 순종적인 인간을 만들기 위한 학교의 역할에 관심을 갖게 했다. I. Illich에 의하면, “학교는 학생들에게 현존하는 사회체제의 존속이 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선전기관이고 다른 어느 기관보다도 사람들을 집요하게 계획에 따라서 종속적 존재로 만드는 기관이다.”<sup>16)</sup>

산업화 시대의 새로운 훈련장소인 학교는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세계에 의해 요구되는 새로운 윤리적, 감성적 사고의 터전이 된다. 학교 교육에서 감정은 실생활에서 어떤 실제적 가치도 갖고 있지 않다고 무시되어지는 반면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사실만이 강조되는 사고는 장려되어진다. 학교는 미래의 노동자를 위한 훈련장소이고, 공장은 노동계층을 길들이기 위한 훈련장소인 것이다. 공장은 노동자의 변화된 행동을 요구하고 기계는 인간을 새로운 리듬으로 무장시키고 심지어 순응적인 노동자 Blackpool도 기계화산업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

## 2. 학교교육과 가정교육

공리주의 교육의 이념은 작품 속에서 Coketown의 교육자인 Gradgrind에 의해 대변되고 있다. 그는 자기 아이들과 그가 운영하는 학교의 아동들을 빅토리아 시대의 자유주의 사상가 J. S. Mill이 그의 자서전 속에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이 감정은 완전히 무시되고 오직 ‘합리성’만이 존중되는 공리주의 사상에 따라 교육시킨다.

“20번 여학생”, Gradgrind 씨는 네모진 집게 손가락으로 정면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저 학생은 모르겠는데 이름이 무엇인가?”

“Sissy 주프예요, 나으리.” 20번 여학생은 얼굴을 붉히고 일어서서 공손히 절하며 대답했다.

“Sissy(sissy는 원래 여자 같은 사내아이란 뜻-역주)는 이름이 아냐.” Gradgrind 씨가 말했다. “Sissy라는 이름을 버려. 네 이름은 씨실리아야.”

“아빠는 저를 Sissy라고 불러요, 나으리.” 어린 소녀는 다시 공손히 절을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버지라도 그렇게 부르면 안 돼. 그렇게 불러선 안 된다고 일러라, 씨

---

16) 이규환, 『비판적 교육사회학』 (서울: 한울, 1987), p. 199에서 재인용.

실리아 주프. 그건 그렇고 아버지는 뭘 하느냐?” Gradgrind씨가 물었다.  
“아빠는 곡마단원이에요, 나오리.”

. . .

“좋아, 그러면 너의 아버지는 수의사 즉, 말을 돌보는 의사이자 말 조련사다. 말에 대해 정의해 보거라.”

(Sissy 주프는 이 요구를 받고 완전히 혼비백산했다)

“20번 여학생은 말을 정의할 줄 모르는구나!” Gradgrind 씨는 모든 어린 학생들을 위해 말했다. “20번 여학생이 가장 혼한 동물에 대해서조차 알고 있는 사실이 전무하다니! 말에 관해 정의해 볼 남학생. 빗썸, 네가 한번 정의해 보아라.”(2-3)

아무런 장식이 없는 수수하고 단조로운 지하교실 내에서 Gradgrind는 학생과 선생에게 ‘사실’만을 강조하고 있다. 공리주의 시각을 가진 그로서는 인물각자의 개성을 감지해서 뚜렷한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전체 속에서 Sissy를 하나의 개체로 바라보고 있다. 모든 사물이 정의되어지고 감성이 끼어 들 여지를 일시에 차단함으로써 어린이의 순수성과 창의력을 파괴하고 있으며 삶을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것은 사실뿐이다. 이는 ‘이성적 사고’를 가진 인간이 되어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가정이나 학교에서 정형화된 사고를 하도록 공리주의를 주입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Gradgrind는 충분히 엄격하지만 Bounderby 만큼 이중적 인간은 아니다. Sissy의 양육이나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가지고 보면 그의 성격이 불친절한 편은 아니었다. 두 사람이 같은 공리주의자라도 이론과 실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 Sissy를 다루는 모습에서도 나타난다. Gradgrind의 교육 방식은 상상력을 절단하는 것으로서 무료하고 단순한 그의 아이들의 삶 속에서 보여지고 있다. 공리주의를 대표하는 그가 셋째 아이와 넷째 아이의 이름을 각각 Adam Smith와 Malthus라고 지은 것도 이와 연관된다.

순수성을 타고난 어린이를 가르치는 Gradgrind식 교육의 요체는 “궁금해 하지 말라”이고, 모든 일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었다. Gradgrind는 지독하게 현실적이며 사실과 계산밖에 모르는 인간이다. 절벽같은 네모진 이마가 그의 생각을 강조하는 듯하고 눈썹이 절벽의 하단을 이루는 듯했고, 두 눈은 그 절벽에 의해 그림자가지는 어두운 쌍굴 속에 있는 거대한 지하실이였다. 네모진 집게 손가락을 가지고 쪽 찢어지고 알팍하면서도 꼭 다문 입과 단호하고 메마르며 명령하는 듯한 말투가 그의 개성을 뒷받침했다. 둘 더하기 둘은 넷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사물을 수학적 토대 위에서 보려는 경향을 가지면서 숫자와 간단한 산술만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Dickens가 작중에서 만들어낸 공리주의 학교는 Birkbeck Schools에서 그 모형을 빌려왔다. J. S. Mill의 친구이자 공리주의자인 William Ellis가 학교를 세웠고, 그의 학교설립 의도는 산업사회에서 가난한 사람을 사회기능에 맞게 무장시키는 것이었다. 교육의 기본 방식은 작중의 시범 수업에서 보여준 대로 질문 대 대답의 접근 방법이다. Birbeck 학교의 과목은 과학과 사회경제로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인간대 인간의 관계는 현금거래의 관점에서 해석되고 있다. 즉, 이기주의가 적용된다.

Dickens의 작품에서 풍자의 대상이 되어 있는 학교는 얼른 보아 지나치게 과장되고 희화화되었다는 인상을 준다. 하층민 아동들에 대한 본격적인 학교교육으로서 알려지고 있는, ‘Bell, Lancaster 시스템’은 종래의 주일학교 이외 비공식 교육제도를 흡수, 확대했는데, 이 제도는 19세기 들어 30년 간의 민중교육을 지배하였다. 1840년대 이후 이 초등교육제는 얼마간 퇴색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리주의적 원칙만은 확고하게 지켜지고 있었다. 이 학교는 흔히 자질이 부족한 교사, 불편한 시설, 과다한 생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무엇보다 인간성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강요된 질서와 규칙, 가혹한 징벌, 그리고 아동들의 지적, 감정적 능력을

마비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내용 없는 단편적 사실들의 기계적 학습과 암기 등으로 특징지어졌다. John Dewey에 의하면 주입식교육은 “다른 모든 것을 배격하고 특정한 정치적, 경제적인 견해를 학생의 정신에 새겨 넣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조직적으로 사용”<sup>17)</sup> 하는 것이다. 아동에 대한 기초교육이 결국 아동들 자신의 인간적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이기보다 산업조직이 요구하는 엄격한 규율과 최소한의 지식의 습득을 겨냥한 것은 분명하다.

전직 권투선수인 교육 관리자는 철저한 애국주의로 무장되어 있고 행정공무원이 다스리는 공공관청의 임무를 수행하는 권위의 대리인으로서 나타난다. 그가 아이들에게 제시하는 말그림이나 꽃그림의 벽지는 ‘사실’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불가능 것이라고 아이들을 쇠뇌시키고 있다.

“모든 면에서 사실이 너를 통제하고 지배해야 하는 것야.” 신사가 말했다. “우리는 사람을 사실의, 사실만의 인간으로 만들 사실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실위원회를 조만간에 구성하기를 희망하지. 너는 공상이란 단어를 완전히 버려야 해. 공상과 너는 아무 관계도 없으니까. 사용할 물건이든 장식할 물건이든 사실과 상충하는 것은 무엇이든 간직하면 못 써. 사실 꽃 위를 걸을 순 없으니까 카페트에 그려진 꽃도 밟게 할 수 없는 거지. 다른 나라의 새나 나비가 네 도자기에 날아와 앉을 순 없으므로 외국 새나 나비를 도자기에 그려서도 안 되는 거란다. 네 발 짐승이 벽 위를 기어다닐 순 없으니 벽 위에 네 발 짐승을 그려서도 곤란하지. 어떤 목적을 가졌든 증명하고 논증할 수 있는 숫자들의 조합과 변형만을 (원색의 한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새로운 발견이고 사실이고 공상이지.”(5-6)

교육관리인의 말에서 이 시대의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유형’을 짐작할

---

17) 히사오 야나기, pp. 173-174.

수 있다. 즉 ‘예술적 감상이나 공상’은 절대적으로 무시되고 오로지 ‘산술적 능력’과 ‘경제적 사고’만을 가진 인간의 양성을 의미한다. 이 곳이 가난한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라고 보면 이들이 커서 될 사회의 위치는 그리 높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짐작컨대 양질의 노동자이면서 ‘반항적 사고’가 미리 차단된 그런 인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당시 공장 감독관의 보고서에 의하면, “제정된 기만적 법률은 아동교육을 위한 것이라고 크게 떠들면서도 그렇게 큰소리친 목적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정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매일 일정시간(3시간)동안 학교라고 불리는 장소의 벽에 아동이 갇혀 있어야 하며 이것에 관해 고용주는 매주 학교교사라고 서명한 인물로부터 증명서를 받아야 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교사는 늙어서 일할 수 없는 노동자였거나 상상도 못할 정도로 무지하고 교수능력이 없는 사람들뿐이었다. 가령 능력 있는 교사가 있다 해도 3세 이상의 가지각색의 아이들이 뒤섞여 있어 교사의 노력은 거의 쓸모없게 된다... 학교의 비품은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고 필기구를 비롯한 그 밖의 교재도 부족하여 쑥쑥하고 불쾌한 공기가 가뜩이나 가련한 아이들을 한층 힘빠지게 한다. 방문해 본 여러 학교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다. 이것이 통학으로 인정되고, 이러한 아이들이 정부통계로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는 것이다.”<sup>18)</sup> 이것이 1884년 ‘공장법’하의 소년노동자의 교육사정이었다.

그러나 *Hard Times*에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인 M'Choakumchild는 백사십여명의 다른 선생들과 똑 같이 같은 공장에서 같은 원리에 따라 가르치는 사람으로 로봇과 같다. 그는 다양한 능력에 대해 시험을 보았고 머리를 어지럽히는 수 많은 질문에 답하였다. 철자법, 어원학, 구문론, 작시법, 전기, 천문학, 지리학, 일반우주 형상학, 복합비율학, 대수학, 토지측량학, 성학, 회화에 두루 정통했다. 그는 교사지

---

18) 히사오 야나기, pp. 173-174.

원자가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 이러한 과목들을 마음의 동요없이 습득했으며 고급수학과 물리학, 불어, 독어, 라틴어, 그리스어도 조금씩은 공부했다. 어떤 것이든 여러 민족의 모든 역사, 모든 하천과 산의 이름, 모든 나라의 산물과 풍속, 관습, 그리고 나라 사이의 경계선과 나침반의 32방향 등을 두루 알고 있었다. M'Choakumchild는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배운 것이다. 너무 많은 지식의 습득이 인간의 정신을 메마르게 한다고 Dickens는 생각하는 것 같다.

공리주의자 Gradgrind의 Stone Lodge는 네모반듯한 저택이었다. 모든 것이 수학적 계산에 의해 만들어져 있고 시설도 최고수준이었다. 그러나 작가는 다음과 같이 반문한다.

모든 것이 있다구?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해. Gradgrind의 자식들은 각 학문 분야마다 작은 장롱을 갖고 있었다. 패류학용 장롱, 야금술용 장롱, 광물학용 장롱 등이었다. 견본을 모두 정리해서 이름표를 붙여 놓았는데 암석이나 광석 조각리 각각은 바로 그 이름이라는 몹시 단단한 도구에 의해 원래의 모체물질로부터 쪼개져 나온 듯 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들어본 적도 없는 피테 파이퍼에 대한 하찮은 동요 형식을 빌어서 말할 때, 탐욕스런 이 아이들이 현재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면 이 아이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어란 말인가!(8)

아이들에게 있어 Gradgrind는 철저한 공리주의자였고 자신의 교육방식에 익숙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나약한 어머니에게서 어떠한 협력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산업사회의 남성성인 기계적인 삶을 물려받을 수 밖에 없었다. Gradgrind 부인은 몸집이 작고 말랐으며 창백했고 급성결막염이 걸려 있을 뿐 아니라 솔을 여러 개 걸쳐야 할 정도로 심신이 쇠약했다. 아무효과도 없는 약을 항상 복용했다. 원기를 찾는 기색이 있을 때마다 닥쳐오는 무지막지한 사실 때문에 다시 어리병병해지는 부인이었다. 그 당시의 남자들은 그들의 세계지배의

원리를 증명해주는 돈의 화신이었고, 여자들은 남편의 돈 때문에 집안 일을 손수 하는 만족마저도 빼앗긴 채 자기들의 계급의 미덕을 한 몸에 구현했다. 즉 그녀들은 바보스럽고, 교육을 받지 못했고, 실제적이 아니며, 소유권이 없는 피보호자였다. 그녀들은 검약과 자조의 시대에 그 존재가 허용된 유일한 사치품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Gradgrind의 철저한 공리주의 교육은 마음과 제도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Rouisa의 결혼 실패와 Tom이 부도덕성에서 드러나듯이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 Ⅲ. 공리주의 교육의 모순

#### 1. 순수성 상실: Rouisa

Gradgrind는 자식이 다섯 있는데 모두가 모범생이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고 새끼토끼처럼 한 곳으로 달리기만 했다. 혼자 뛰어다닐 수 있게 되자마자 곧바로 교실로 뛰어가도록 훈련받았다. 아이들이 연상하고 기억하는 최초의 대상은, 감정을 나타내지 않는 귀신 같은 선생이 분필로 끄적힌 하얀 숫자를 그 위에 쓰던 커다란 흑판이었다.

이 꼬마들은 들판의 소를 보고도, 옛기름을 삼킨 쥐를 잡아먹은 고양이를 문 개를 뒤틀린 빨로 박아버린 동요 속의 그 유명한 소나, 동화의 주인공인 엄지 손가락 Tom을 삼켜버린 한층 더 유명한 소를 연상하지 못했다. 이 아이들은 괴물과 같은 동화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채 '통계학의 동굴(statistical dens)'로 이끌려 갔다. 그리고 동요나 연상을 일으키지도 못했고 오로지 배운 사고 위에서만 생각하도록 교육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Orwel이 언급한 후천적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인간의 성격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항상 그를 위해 형성된 것이다. 그것은 주로 어른에 의해서 형성되며 현재에도 형성되고 있다. 어른이 인간의 관념과 습관-인간의 행동을 지배하고 지도하는 힘-을 부여하고 또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자기 스스로 성격을 형성한 예는 일찍이 없었고 또 있을 수도 없다.<sup>19)</sup>

본래 예민한 감수성과 풍부한 상상력을 지닌 Rouisa는, 인간의 감정적

---

19) 히사오 야나기, pp. 173-174.

면의 존재조차 거부하는 교육만을 받아온 탓으로, 그녀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에 당황하며, 그녀의 미지의 인생에 대해 끊임없이 의혹하며 어린시절을 보낸다. 이런 그녀를 이해 못하는 Gradgrind의 답답해 하는 모습을 통해 의사소통이 차단된 두 개의 다른 세계를 보는 듯하다.

키가 작은 풀과 마른 쓰레기가 널려 있는 공지가 그와 아이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확인해서 집으로 쫓을 수 있는 아이를 찾기 위해 Gradgrind는 조끼에서 안경을 끄집어냈다. 두 눈으로 뚜렷이 보면서도 거의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는데, 야금술적인 Rouisa는 전나무 널빤지에 난 구멍을 통해서 안을 엿보느라 온 힘을 다하고 있었고, 수학적인 토마스는 티롤지방의 우아한 마술의 정수를 발굽이라도 조금 보고자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다.(9)

서커스를 보다가 아버지 Gradgrind에게 발견된 Rouisa의 아쉬움이 담긴 시무룩한 기색은 그녀의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감성과 상상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보여주고 있다. 오로지 어릴 적부터 사실에 관한 것만 배우고 직관에 관한 것을 알 기회가 없었던 그녀에게는 서커스단과 같은 오락거리는 새로운 세상을 밝혀주는 수단일 수 밖에 없었고 Rouisa는 아버지에게 지쳤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공리주의자인 Gradgrind에게 서커스는 하나의 타락된 장소였다.

얼굴에 감도는 불만을 헤치고 다소나마 안색을 밝게 해주는 것들 수 없는 빛과 태울 것 없는 불길, 그리고 삶을 이력저력 지탱해주는 굶주린 상상력이 Rouisa에게는 있었다. 쾌활한 청춘에 당연한 빛 대신에 불안정하고 무엇인가를 갈망하며 의심에 찬 빛이 Rouisa의 얼굴에 번득였고, 그 속에는 더듬어서 길을 가는 장님의 얼굴에 생기는 변화와 유사한 고통이 담겨 있었다.(10)

Rouisa는 어린시절 ‘절대 궁금해 하지 말거라’ 라는 교육을 받고 자랐다. 즉 감성이나 상상력을 개발하는 데에는 조금도 신경쓰지 않으면서 이성만을 교육시키는 것이다. 그녀의 불행은 공리주의자처럼 사실이외에 나타난 감상적인 의견을 품지 말아야 한다는 의식에서 비롯된다. Rouisa는 감정의 대피처인 Tom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점점 나이를 먹고 자라서 여기에 앉아 골똥히 생각할 때마다, 네가 집에서 만족스레 지내도록 할 수 없었던 것이 내게는 얼마나 큰 불행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란단다. Tom.” 그의 누나는 잠시 동안 불똥을 말 없이 지켜보다가 마침내 말했다. “다른 여자아이들이 아는 것조차 모르고 너와 놀아주거나 노래를 해줄 줄도 모르니. 재미있는 광경을 본 적이 없고 재미있는 책을 읽은 적도 없으니까 네가 지쳤을 때 즐거움이 나 위안이 되고 마음을 편하게 해줄 정도로 말할 줄도 모를 밖에.”(39)

그녀의 어린시절은 Boudier와 결혼함으로써 끝나는데, 그녀의 결혼은, Gradgrind로서는 자기의 평소의 원리와, 원칙에 입각한 것으로 만족스러운 것이었으나, Rouisa는 본능적으로 그것이 자기의 존재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어렵풋이나마 알고 있었기에, Gradgrind에게 그러한 사실을 납득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결국은 수포로 돌아간다.

Rouisa는 손을 조금 움직여서 그 화제를 떨구고는 부친에게 다시 주목하며 말했다. “아버지, 인생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이 것은 분명히 그가 즐겨 이야기하는 화제였기 때문에 그가 끼어들었다.

“애야, 인생은 정말 짧은 거란다. 그러나 최근에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잘못될 리가 없는 계산 중에서도, 여러 생명보험회사와 연금회사의 계산이 그 사실을 입증하고 있지.”

“아버지, 저는 저의 인생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오, 그래?” Gradgrind 씨가 말했다. “하지만 Rouisa야, 그 문제 역시 전체적인 수명을 지배하는 법칙에 의해 지배받는다는 사실을 새삼 지적할

필요야 없겠지.”

“살아 있는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적은 일이나마,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어요.”(76-77)

Gradgrind가 이처럼 원리원칙적인 대답을 하자, Rouisa는 더 이상의 시도를 포기하고 체념한 기운으로 오로지 Boundy의 회사에 취직하려는 Tom을 위해 그 결혼을 수락한다. 이처럼 Rouisa나 Tom이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공리주의 체제로부터의 해방이 아닌 전략적이며 정신적, 육체적 타락의 시작이었다.

세상 경험이 없는 Rouisa는 강요받는 물질적 결혼관, 도덕관의 허위를 확실히 꿰뚫어 볼 정도로 정신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였고, Tom을 위해서, 체념의 심정으로 결혼하는 것이 그녀가 받아들인 합리적 교육관과 상반된다는 사실조차 명확히 깨달을 수 없었다. 즉 그녀는 사랑이 결혼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며, 이성만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모르는 감성이 메마른 어른이 되어 있었다. 공리주의 세계에서 사랑은 상상

Rouisa는 공리주의 교육을 받고 자라서 아이의 꿈이나 공상에 관해 아는 것이 없었다. 그녀에게 Stone Lodge은 유쾌한 추억이 있는 그리운 집이 아니었다. 낭만주의자들은 상상력 속에서 평범한 사물이 환상적이고 기이하고 특이한 것을 만들어 낸다고 하는데 애정이 없는 집은 그녀에게 버려야 할 쓰레기에 불과했다. 그 저택은 어린시절의 꿈들-그 시절의 환상적인 이야기, 내세에 대한 우아하고 아름답고 고상하며 믿을 수 없는 장식들, 아담의 후손들이 처세술을 발휘하는 대신 소박하게 믿으면서 일광욕을 하는 게 오히려 나은 자갈길 같은 세상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들이 양손으로 정원을 일구도록 허용해서 아무리 하찮은 꿈이라도 자란 다음엔 커다란 사랑으로 기억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삶의 목표를 찾아 정신적 방황을 하는 Rouisa는 비록 그녀에게 사랑의 존재를 알려주는 역할을 했지만, 속물주의자이고 염세주의자인 James Harthouse와 도피를 통한 도덕적 과멸에 이르지 않는다는. 이러한 모습에서 공리주의 교육의 영향을 받은 그녀의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자아가 내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Rouisa의 내면적 자각에 의한 변모과정은 여러 가지의 준비 상황과 사건들- Tom의 도덕적 타락, James Harthouse의 적절한 출현, Sissy의 도움- 에 의해 감상에 흐르지 않고 설득력있게 그려지고 있으나, 그녀의 모습은 아직 사춘기 소년의 눈에 비친 것과 같은 추상적이고 덜 자란 어린이의 모습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현실보다는 공상과 상상이 지배하는 세계에 대한 그녀의 집착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아버지, 만약 제가 완전히 눈이 멀어서 촉각에만 의지해 더듬으며 길을 갔다면, 그리고 사물의 형태와 외양을 알고 있으니 그것들과 관련해서 다소 자유자재로 공상을 발휘할 수 있었다면, 지금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태보다 수백만 배 현명하고 행복하고 더욱 사랑하고 만족스럽게 지내면서 모든 면에서 더욱 순수하고 인간적일 수 있었을 겁니다. 이제 제가 말하려고 하는 바를 잘 들으세요.”

Gradgrind 씨는 Rouisa를 팔로 부축하고자 일어섰다. 아버지를 따라 Rouisa도 일어나서 둘은 함께 섰다. Rouisa는 부친의 어깨에 손을 얹은 채 그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아버지, 한편으로는 잠시도 진정되지 않는 굼주림과 갈증을 느끼고 또 한편으론 자와 숫자와 정의가 절대적으로 통하지는 않는 영역에 대한 열렬한 갈망을 품고서 매순간 싸우며 저는 자랐어요.”

“네가 불행할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애야.”

“아버지, 저는 항상 불행했어요. 살아가면서 착한 천사를 악마라고 거부하고 가루로 뭉개야 했으니까요. 제가 배운 지식은 모르는 것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경멸하고 한심하게 여기도록 만들었지요. 인생은 곧 끝날 테니까 애써서 다투는 수고를 할 가치가 조금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참담한 저의 마지막 수단이었으니까요.”(165-166)

합리적 인간인 Gradgrind는 Rouisa가 공리주의 틀 속에서 자기불신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가 주장했던 사상의 실패를 인정하기보다는 소극적 자세인 부정애적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공리주의의 전형적인 모델이었던 Rouisa는 긍정적 정서가 풍부한 Sissy와 물질세계를 나타내는 Bounderby 사이의 줄다리기에 있어서 작가가 내세우고자 했던 두 세계의 조화를 발견한다.

## 2. 도덕성 상실: Tom

순수와 감성의 상징으로 인식된 어린이는 산업사회의 물질적 가치관과 Victoria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공리주의 가치관으로 인한 인간성의 파괴에 두려움을 느낀 Dickens의 작품 속에서 상징적 역할을 한다. 공리주의적 사고 속에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Tom의 모습은 꿈과 상상력을 잃어버린 물질만능사회의 축소판과 같다.

Victoria시대는 산업의 시대요 과학의 시대였지만 Carlyle을 비롯한 Ruskin, Kingsley등은 동화적인 상상력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빵과 우유가 어린이의 신체발육에 필요한 것과 같이 꿈과 환상으로 가득찬 동화는 어린이의 정서발달에 꼭 필요한 양식이였다. 그러나 Tom은 그런 세상을 접할 기회가 없었고 원초적으로 공리주의적 교육에 맞지 않는 아이였다. 그는 Rouisa에게 벗어날 수 없는 이성의 세계에 대한 증오를 나타내며 비도덕적 제안을 함으로써 공리주의 교육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수없이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사실과 모든 숫자, 그리고 그것들을 발견해 낸 사람들을 모두 한 곳에 모았으면 싶어.”이를 악물며 Tom

이 심술궂게 말했다. “그리고는 그들 밑에 수천 배럴의 화약을 설치해서 공중에 모두 날려보내고 싶어! 하지만 Bunderby 늙은이와 함께 지내게 되면 나는 복수할거야.”

“복수를 한다구, Tom?”

“인생을 약간 즐기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직접 보고 듣고 하겠단 말이야. 이제까지 양육된 방식에 대해 빛을 झा겠어.”(40)

Tom은 도박에서 위안을 발견하고는 고용주의 돈을 훔치고 결국은 정직한 노동자인 Blackpool를 끌어들였다. 도둑질이 밝혀졌을 때 그는 Gradgrind에게 자신은 체제에 순응했을 뿐이라고 말함으로써 개인의 책임을 추상적인 통계법칙에 따라 사라져 버리게 만든다. 즉 Dickens는 인간을 체제의 희생양으로 여기며 그의 탈출의 타당성을 부여해 주고 있는 것이다. 작품 속에서 인간의 선택은 기계적 결정론의 연관선상에 한정되어 지고 있다. Gradgrind의 시스템은 인간의 행동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감정의 힘을 차단하는데 있는 것으로서 Tom의 개인주의적 사고에 근거가 되고 있다.

Tom은 계산된 인간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고 그에게 있어 탈출구는 물질적인 삶에 의한 자기 해체와도 같았다. 그의 비도덕적 행동은 공리주의 사고에 대한 하나의 복수였다. 그는 건달같은 삶을 즐겼고 본성을 뜯어 고쳐 그와 맞지 않는 공리주의에 맞추어 나갔다.

합리적인 억제의 체계 속에서 성장한 젊은 신사가 위선자가 된다는 것이 희한한 일이었지만 Tom의 경우에는 분명한 사실이었다. 스스로 알아서 할 책임을 오 분 이상 떠맡을 적이 없는 젊은 신사가 결국 자신을 조절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었지만 Tom에게는 사실이었다. 어릴 때 상상력이 말살된 젊은 신사가 천박한 관능성의 형태를 지닌 상상력의 그림자 때문에 불편을 느낀다는 사실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으나 Tom은 분명히 그런 괴짜였다.

“ 까닭을 모르겠군요.” 자식(Tom)이 투덜거렸다. “책임이 무거운 자리에 있으면서도 부정직한 사람이 아주 많잖아요. 그것이 관례라고 아버지가 말하는 걸 수백 번은 들었습니다. 관례를 제가 어떻게 피하겠어요? 그런 말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했었잖아요, 아버지. 편하게 생각하세요!”(216)

Tom의 사고는 Boudier와 같이 주위의 모든 사물과 생명체를 자신의 이익에 맞게 이용하고 있다. “공리주의자인 Bentham은 대체로 모든 사물에 있어서 자연적인 것보다는 인공적인 것을 좋아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며, 사람의 정신은 전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가 집 밖에 경관, 즉 푸른 들이나 나무 따위는 아주 경멸했으며, 또 모든 것을 항상 효용을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었다.” 라는 부정적 관점을 통해서 공리주의를 본다면 Tom의 잘못된 적용이 얼마나 비도덕적인 인간을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 3. 극단적 개인주의 및 물질주의

서구적 산업혁명은 가장 싼 시장에서 사서 가장 비싼 시장에서 판다는 당시의 최고 계율에 의해서 지배되는 수많은 기업가들과 투자자들이 엇갈리는 결정을 내리는 가운데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독특한 역사적 상황 아래서 일어났다. 새로운 경제로 이행됨에 따라 부정적 결과물들로 인한 빈부의 격차에 따른 빈곤과 불만은 필연적이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Charles Dawin의 “적자생존의 법칙”은 생존경쟁을 통해 환경에 적응한 종이 살아 남는다는 이론을 제의했고 스펜서가 그 적자생존의 원리를 인류사회에 적용하여 투쟁과 충돌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의 진보의 과정에서 패배하는 자는 파멸하게 마련이다라고 주장한다.

요컨대, 고전적 자유주의의 눈에 비친 인간의 세계란 어떤 생래적인

정열과 충동을 가진, 독립 자족하는 개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원자는 무엇보다도 자기의 만족을 극대화하고 불만족을 극소화하기를 꾀하며, 이 점에 있어 다른 모든 원자와 평등하며, 그래서 그 강한 충동에 대하여 당연히 어떠한 제한이나 간섭을 가할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원자였다. William Hazlitt는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에서 개인을 사회에 우선한다는 개인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사회는 일정한 수의 개인들로 구성된다. 정부의 권리는 이 개인들이 본래부터 갖고 있는 권리들을 상호 균등케 하고 중화시킨 결과로 집적된 권리이다. 개인의 자연권을 부정하면 어떤 종류의 권리도-그것이 신성한 권리건 인간적 권리건-있을 수 없지 않은가. 왜냐하면 어떠한 집단도 집단으로 있기 전에 먼저 개별의 상태로 있기 때문이다. 세계는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기계는 부품들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다.<sup>20)</sup>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부르조아적 공리주의는 당시의 사회에서 노동자계층이라는 새로운 빈곤층을 만들어냈으며 자유주의 고전경제학자에 의해서 빈곤과 실업의 원인을 경제적 구조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개인들의 태만, 무절제, 협잡 등에서 찾으려 하는 결과를 낳았다.

Dickens는 부르조아 공리주의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세상은 붉은 벽돌의 도시 그리고 기계와 높은 굴뚝의 도시였으며 도시 안에서는 검은 운하가 하나 있고 고약한 악취를 풍기는 염색물감 때문에 자주 빛으로 흐르는 강을 표현하면서 지나친 산업화 속에서 병들어 가는 인간 세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는 공리주의 세계는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내면세상을 통제하고 있었다. 부르조아계층이나 노동자계층 사람들은 그들의 세계 지배의 원리를 증명해주는 돈의 노예가 되어가고

---

20) William Hazlitt, “Project for a New Theory of Civil and Criminal Legislation”, in Complete Works, ed. by P. P. Hov, Dent(1933), Vol. 19, p. 305.

있었다. 특히 오로지 공리주의적 사고만을 교육받은 Bitzer는 마음이 정확하게 조절되어 애정이나 감정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서 그의 모친을 구빈원에 수용시켰다.

그 당시의 사회는 노동자 계층에서 태어났으나 냉철한 이성과 명석한 머리를 가진 Bitzer와 같은 사람에게 사업을 한다든지 교육을 받는 일 그 어느 것도 탄탄대로는 아니었다. 특히 개인주의적인 사회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알고 있고, 혹은 또 ‘출세하는 것’을 바람직한 일로 받아들이게 된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다. Bitzer는 Bounderby 은행에 일하면서 밀정 겸 밀고자로서 상당한 역할을 하면서 많은 사례를 받으면서 부도덕한 행위를 통해서라도 물질적 성공을 하려는 그의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그의 이런 모습은 Tom을 해외로 피난시키기 위해 애쓰는 Gradgrind와의 대화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만약 이게 단지 이기심의 문제라면-” Gradgrind 씨가 얘기를 시작했다.

“말을 가로막아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Bitzer가 대꾸했다. “그러나 전 사회체계가 이기심의 문제라는 것은 나으리도 알리라 확신합니다. 선생님은 항상 개인의 이기심에 호소해야 할겁니다. 선생님의 영향력 내에 있는 건 그것뿐이고 우리는 또한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요.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어릴 때부터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얼마를 받으면 내가 기대하는 승진과 균형이 맞겠니?” Gradgrind 씨가 물었다.

“그런 제안을 비치시다니 감사합니다, 선생님.” Biter가 대답했다.

“하지만 돈을 아무리 받아도 균형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의 명석한 두뇌가 그런 제안을 하리라고 짐작해서 제가 이미 속으로 따져보았으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조건이더라도 돈을 받고 합의 처리하는 것은, 은행에서 승진할 가능성보다 안전하지도 않고 유리하지도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218)

이런 그의 모습은 물질적 성공을 위해 어머니를 저버린 Bounderby와 흡사한 모습을 보이면서 교육과 사회를 지배하는 공리주의의 연관성을 생각하게 하고 있다. Bounderby는 물질적 성공 속에서 Rouisa와의 결혼을 통해 완벽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신혼여행지로 리용을 택하여 노동자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들도 황금수저로 음식물을 먹기를 바라는지 관찰할 기회를 갖고자 하는 모습에서 엄격하고 독선적이고 비지성적이며 위선이 몸에 배어 있는 이기주의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Bitzer의 사고를 지배하는 공리주의 교육자인 Gradgrind의 기본원칙은 모든 것에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에게나 무엇이든 주는 것은 제거되어야 했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미덕들은 미덕이 되지 않아야 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람살이의 모든 면면이 계산대위를 오가는 거래여야 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천당에 갈 수 없다면, 그곳은 정치경제학적인 장소가 아니므로 아무상관도 없는 장소였다는 논리는 모든 사물은 받는 사람을 반드시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경향을 지녔다는 신빈민법의 사고를 짐작케 한다. Gradgrind의 실용적 교육관은 감정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메마른 생활을 하는 Rouisa와 Tom의 운명을 물질만능의 산업사회에서 기계처럼 일하는 Coketown의 주민들의 운명과 같은 틀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그의 이러한 원칙은 창 하나도 없는 천문관측소에서 천문가가 별들의 우주를 펜과 잉크와 종이만으로 배열하듯이 그의 관측소 안에서 자기 주변에 들끓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눈길 하나 던질 필요 없이 그들의 운명을 석판 위에 결정짓고, 한 개의 작고 더러운 스펀지 조각으로 그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내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 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상적 배경을 지닌 중산층과 귀족층 사이에서 이루어진 빅토리안 타협을 통한 지배계급 구조를 Dickens는 공리주의자이자 국회의원인 Gradgrind와 “시궁창에서” 올라와 자수성가했다고 떠벌리지만 사실

은 사기꾼에 불과한 Bounderby, 그리고 이들에 기생하면서 무위도식하는 봉건세력 Harthouse의 관계를 통해 공리주의적 자유방임형 사회의 틀을 보여준다.

그러나 Bounderby와 Gradgrind에 의한 공리주의의 이론과 응용의 불균형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했다. 교육을 통해 강제 주입 적으로 사실만을 가르치는 학습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감성교육을 통해 상호 교류하고 이해하는 개성을 가진 인간이 될 기회를 박탈하므로써 꼭 닳은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포도에서 같은 소리를 내며 같은 일을 하기 위해 출퇴근하는 기계의 톱니바퀴 같은 단조로운 사회를 만들어 냈다. 그들의 경제적 토대인 공업은 기계화, 합리화를 이용하여 생산과 판매를 확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윤의 감소를 단위당 소이윤의 대량집적에 의해 보충할 것을 강요하고 있었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외되는 Blackpool은 노동자들의 어려운 삶을 Bounderby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 그 중에서도 노동자들을 동력으로만 생각해서 사랑이나 취미도 없는, 기억이나 기호도 없는, 지치거나 희망을 품을 영혼도 없는 산수숫자나 기계같이 그들을 다루어서는 -만사가 조용히 진행되면 노동자들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존재인 양 그들을 부려먹고, 시끄러워지면 양반님들과 접촉하는 데 인간적인 감정이 부족하다고 그들을 비난해서는- 지구가 끝장날 때까지도 사태가 개선될 수 없습니다, 나오리.”(116)

단순했던 노동자들은 그들이 겪고 있는 고생의 원인으로 간주되었던 기계들을 부숨으로써 새로운 체제에 반항하였다. 그러나 놀랄 정도로 많은 지방 사업가와 농민경영자들도 노동자들의 이러한 “러다이트 운동(Luddite Movement)”에 깊이 공감했는데, 이는 그들 역시 자기 자신을 소수의 잔인한 이기적 혁신가들의 희생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소득을 생존비 수준에 묶어두고, 그렇게 함으로써 공업화 자금으

로 전환되었던, 그리고 부자들이 풍부한 생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하였던 이윤을 부자들이 축적할 수 있게 하였던 노동의 착취는 노동자들의 반항을 초래하였다.

결국 공리주의에 대한 Dickens의 비판은 그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무시하고 사람을 기계적이고 비인간적인 틀에 구속하려고 하는 공리주의적 사고를 가진 자의 이기주의적 양심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일 것이다.



## IV. 자유주의적 사고에 의한 인간교육의 모색

Dickens는 *Household words*에서 공리주의에 대한 그의 의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우리 주변의 떠들썩한 세계”의 “좋고 나쁜 사회적 경이들”을 이야기하도록 의도된 한편, 그것은 “단순한 공리주의적 정신이나 정신을 엄연한 현실에 묶는 그 어떤 구속”도 채택해서는 안되며, “인간 심성에 내재하는 환상의 빛을 소중히 해야 한다.”<sup>21)</sup>

다시 말하면 Dickens는 순수의 상실과 도덕적 혼란이 내재된 도시 속 사람들의 치료사로서 서커스와 같은 순수한 어린이의 세계로 이끌 수 있는 매개체를 택했다.

산업사회를 지배하던 고전적 부르주아 자유주의는 엄격히 합리주의적이면서 비종교적이었다. 바꿔 말하면 그것은 원칙적으로 인간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이성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믿었다. 또한 비합리적인 행동과 제도들은 이성을 계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어둡고 흐리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상은 경제적 이데올로기인 공리주의를 낳았으며 이는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인간적 활기와 에너지로 충만한 서커스단은 공리주의적 계산방법으로 보자면 무가치한 것이지만, 공리주의 철학이 통일적으로 지배하는 산업조직과 교육체계에 본질적으로 부재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어설픈 술집여관에서 머무르는 서커스단은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이

---

21) John Richetti, *Columbia History of British Novel*, 근대 영미소설학회, 『영국소설사』 (서울: 신아사, 2000), p. 400.

위대해 보이듯이 공리주의 세계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하며 다음의 내용과 같은 낭만주의 사고를 불어 넣고 있다.

술집 이름은 Pegasus의 양팔이었다. Pegasus의 다리가 좀더 적절한 것 같았으나 간판에 있는 날개 달린 말 그림 밑에, Pegasus의 양팔이라고 로마글자로 쓰여 있었다. 술집 이름 밑에는 화가가 물 흐르듯 미끈하게 써넣은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었다.

엇기름이 좋아야 맥주 맛이 좋지요,  
들어오시면 맛 좋은 맥주를 드실 수 있습니다.  
좋은 포도주를 써야 좋은 브랜디를 만들 수 있지요,  
방문하시면 좋은 브랜디를 드실 수 있습니다.(21)

어둠 속에서 빛나는 촛불과도 같은 것이, 공리주의라는 경직된 이데올로기 속에서 이채를 띄우는 서커스단의 모습이다. 술집여관의 pegasus 모습은 공리주의적 사고에서는 불가능한 상상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즉 이는 직관의 세계를 무조건 거부하는 Gradgrind의 세계와는 다른 상상의 세계를 명백히 구분해 주고 있다. 그들의 집안 일은 전혀 정돈되어 있지 않았고 그들의 학식은 다 합해 보아야 겨우 초라한 글자 하나 나올 뿐이었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놀랄 만한 부드러움과 어린애다움이 있었고, 어떤 종류든 약삭빠른 교활한 일에 대해서는 특수한 부적합성이 있었으며, 서로서로 돕고 동정하려는 지칠 줄 모르는 열성이 있었다. 이것은 이 세상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나날의 덕성들만큼이나 종종 존경을 받을 만한 것이었고 또 언제나 관대하게 해석할 만한 것이었다.

서커스단은 Coketown의 외곽지역에 존재하며 사회 주변에 살고 있는 여행자에 불과했다. 그들은 산업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해결책으로 보여지지 않으며 다만 하나의 피난처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서커

스단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개인은 따로 떨어진 존재들이 아니라 서로가 의존하며 책임을 지는 관계를 유지하는 공동체이다. 이는 대가족사회에서 개인의 이익보다 자식과 가족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모습과 같다. Sissy의 아버지가 가출하는 바람에 고아가 될 처지에 놓이자 말아서 길으려는 그들의 모습은 개인주의로 찌든 Bounderby와 같은 사람에게는 없는 인간애를 보여주고 있다. 각자가 기계에 예속된 사람들과는 달리 개성이 다르고 집단이라는 전체 속에서 개인의 특성을 잘 발휘하며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들 중에는 두세 명의 잘생긴 젊은 여자들이 있었고, 두세 명의 남편들, 두세 명의 어머니들, 그리고 필요할 때 멋진 연기를 해내는 여덟 내지 아홉 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그들 중 한 가족의 아버지가 커다란 막대기 끝에 다른 가족의 아버지와 균형을 유지하면 세 번째 가족의 아버지가 토대를 이루어 두 아버지와 함께 피라미드를 만들었고, Master Kidderminster는 꼭대기를 차지하고 앉았다. 아버지들은 모두 구르는 통 위에서 춤을 추고, 병 위에 서고, 갈과 공을 받고, 세면기를 빙빙 돌리고, 아무것이나 타고, 모든 것을 뛰어넘으며, 무슨 일이든 망설이지 않고 해낼 수 있었다. 어머니들은 모두 느슨한 철사와 팽팽한 밧줄 위에서 춤을 추고, 안장 없는 말 위에서 재빠른 행동을 취할 수 있었고, 또 그리했다. 이들은 아무도 자신의 다리를 내보이는 일에 대해서 까다롭게 굴지 않았고 그들 중 한 명은 홀로 그리스식 마차를 몰아 여섯 명의 식솔을 거느리고는 아무 마을에나 다니기도 했다. 그들은 모두 대단히 방탕한 척, 세상일에 통달한 척했고, 사복 차림일 때는 그다지 단정해 보이지 않았다.(27)

Gradgrind는 서커스는 시시한 볼거리에 불과하며 감화원에 맡겨야 할 족속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이외의 세계를 거부한다. 오직 그의 머리는 공리주의적 사고로 채워져 있었고 상상력이 들어올 세계는 없었다. 이러한 공리주의에 대해 서커스단의 단장인 Sleary의 생각은 감성이 매마

른 세상에서 자기들의 역할을 주지시키면서 앞으로 다가올 불행을 예견하고 있다.

사람들은 아무튼 오락거리를 가져야한 하지요, 썬생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숨이 찼지만 Sleary는 말을 이었다. “사람들이 항상 일만 하거나 공부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이용하십시오. 평생동안 곡마단으로 생계를 꾸려 왔지만 썬생님, 우리를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이용하라고 말했을 때 문제의 골자를 제시했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아래층으로 내려가면서 Sleary는 자기의 철학을 제시했다.(32)

서커스단이란 감성의 세계는 Sissy에 마음속에 그대로 이어져 내려온다. 서커스는 상상력을 키워주는 동화의 세계를 연상시키면서 어린이의 정서발달을 가로막는 장애요소와 곳곳에서 부딪치는 그 당시와 같은 산업사회에서는 더욱 필요한 요소의 방어막의 역할을 Sissy에게 해준다. 그리고 Sissy가 아버지와 읽은 동화는 어린이의 상상력과 감수성과 같은 정서를 자극, 충동, 함양하고 인간애를 유발시키면서 인간성을 풍부하게 하고 성격을 원만하게 하기 때문에 미숙하고 개발되어 있지 않는 어린이의 내면의 세계는 상상력을 통해서 충분히 개발되고 발전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Sissy의 정서적 토대가 되는 동화는 Dickens의 경험에서 우리러 나오고 있다. 그의 어린시절의 평화스럽고 목가적인 환경 속에서 보낸 5년이란 세월은 Dickens로서는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다. 이 시절에 그는 피카레스크류의 책을 많이 읽었고 이러한 책들이 그의 공상을 생생하게 하고 여기에 나오는 장소와 시간을 초월한 희망을 Dickens에게 안겨주었던 것이다.<sup>22)</sup>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세계를 경험한 Sissy에게 이성적 사고로 가득찬

---

22) Allan Grant, *A Preface to Dickens*(New York: Longman Group, 1984), pp. 17-18

교육관리인이 ‘사실’이란 개념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유도질문을 하지만 그녀를 이해시키지는 못한다.

“너는 네 방에-그리고 자라서 결혼한다면 남편 방에-꽃 그림이 있는 카펫을 깔겠다는 거지. 어째서 그럴 생각이 드니?” 신사가 물었다.

“사실은 제가 꽃을 몹시 좋아하거든요, 나오리.” Sissy가 대답했다.

“그게 꽃 위에 식탁과 의자를 올려놓고 무거운 장화를 신은 사람들이 그 위를 걷게 할 이유란 말이나?”

“그런다고 해서 꽃이 상하지야 않잖아요, 나오리. 카펫에 그려진 꽃들이 으스스하거나 시들지는 않으니깐요. 그 꽃들은 아름답고 유쾌한 그림일 뿐이니까요. 게다가 저는 공상하기를 좋아하거든요.”

“오, 이런, 이런! 공상 같은 걸 해서는 안 돼.” 신사는 다행히 요점에 들어가지 않게 돼서 몹시 기뻐하며 말했다. “이게 중요한 점이야! 공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야.”(5)

Sissy는 모두가 자기의 이기심만을 채우려 드는 곳에서 마치 『알리 바바와 10인』의 도적의 Morgiana처럼 지나친 개인주의 사회에서 해결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Gradgrind의 동정과 인간정신 개조에 대한 열성에 의해서 Stone Lodge에 살게된 그녀는 거꾸로 그의 가족에게 인간애를 주입시켜간다. 이러한 내용은 Gradgrind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Rouisa야, 순전히 사랑과 감사에 의해 집 안에 어떤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며, 두뇌가 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는 일을 가슴이 소리 없이 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드는구나. 그럴 수 있는 거니?”(170)

공리주의 교육의 성공적 상징이었던 Rouisa가 결혼에 실패하므로써 Gradgrind는 자신의 독단적 교육 방법에 대해 심각하게 반성하게 되고,

Sissy가 집에 들어옴으로 인해 가족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모습에서 그 자신 속에 억제되어 있었던 감성이 일깨워짐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렇다고 이를 공리주의에 대한 직관주의의 승리로 보면 안 된다. Gradgrind는 합리적인 공리주의자로서 Rouisa의 결혼이나 Tom의 도둑질을 합리적인 이성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농촌사회의 전통적인 가치관인 가족적 애정을 내세움으로써 자기 모순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자기 자책일 수도 있다. 따라서 그는 인간이 발전할 수 있다는 최대의 희망이 우리의 성격이나 기본적 욕구의 변화에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서 정치 제도란 인간을 그들 역사의 특정한 여건과 발전 과정에 적응하게 하는 사회 교육의 방편으로 밖에 생각하지 못한다. J. S. Mill에 의하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 줄 특정한 하나의 삶의 방식이란 있을 수 없다. 능력 개발의 수단과 균등한 기회가 있고 예속이 존재하지 않는 여건 속에서 인간은 자유로이 자신의 삶의 방식을 스스로 택하게 된다. 그러한 적절한 조건하에서 그들의 자유로운 선택은 결국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즉 자유가 존귀한 것은 쾌락을 증진시키거나 최대 행복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인격이 완전한 전체로 가장 조화롭게 발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 V. 결 론

19세기를 거치면서 낭만주의 문학인들은 산업혁명의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전통적인 농촌사회에서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으며 사람들은 급격한 사상적 변화를 경험해야 했다. 즉 정적이고 감성을 중시하는 유아적 친절함이 인간관계를 가능하게 했던 사회는 새로운 노동력이 필요로 하면서 사상적 변화가 필요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경제적 이득을 챙긴 중산층이 생겨나고 이에 반해 빈민층이 다수를 이루면서 소수의 중산층은 그들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경제적 이데올로기의 정립이 필요했다. 그 당시에 등장한 대표적 이데올로기는 자유방임주의와 공리주의로서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상이었다.

Dickens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소수 중산층을 위한 공리주의적 이데올로기가 교육과 인간정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Hard Times*에서 보여주었다.

본문 2장에서는 산업사회에서의 노동자 길들이기 교육이념을 살펴보고 가정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어떻게 아동들의 심성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보여주고자 했다. 산업화 사회는 기존의 농업사회와 달리 기계에 의해 일을 획일화, 단순화, 분업화하면서 여기에 순응할 인간의 육성을 필요로 했다. 모든 경제거래는 가장 싸게 사서 가장 비싸게 파는 원칙이 적용되었고 일상생활은 사실만이 강조되고 반복적인 일들이 연속이었다. 이를 위해 그들은 값싼 노동력을 통한 더 많은 수익성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학교도 이런 노동자를 양산하는 도구로 이용되었다.

3장에서는 어른들에 의한 공리주의 사고의 무조건적 주입이 아이들로 하여금 세상을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비정상적인 인간

을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Rouisa, Tom 그리고 Bitzer는 지나치게 합리적인 교육을 받아서 감성이 풍부한 세계를 경험하지 못함으로써 영혼이 황폐하고 비도덕적인 인물이 된다. 그들에게 물질적 풍요와 성공은 삶의 목표였으며 감정은 사치에 불과했다.

4장에서는 순수한 인간성과 도덕성이 사라져버린 Coketown사회에 어둠을 밝히는 등대와 같은 존재로 Sissy와 서커스단을 등장시킨다. Sissy는 영혼이 맑은 아이로서 사실만이 주입되는 교육에 적응을 못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길 잃은 사람들에게 등불이 되어준다.

Dickens는 Sissy를 통해서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보여주고 있고 이는 J. S. Mill의 자유주의 사상과 맥을 같이 한다. J. S. Mill은 아버지에 의해 철저한 공리주의 교육을 받았으나 커서는 인생에 대해 깊은 회의에 빠진다. 결국 그는 위즈워드의 낭만주의에서 감성에 의한 세계를 발견하면서 생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그의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양적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이성과 더불어 감성이 심어져 있고 타인을 중시할 줄 아는 인간의 형성이 중요함을 깨우치게 되었다.

Dickens는 *Hard Times*에서 중산층의 이데올로기가 산업사회와 교육 분야에 끼치는 영향에 날카로운 비판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단지 제 3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제한된 관점에 불과하다. 그는 산업혁명이 가져온 기계화와 단순화가, 사회의 중심세력으로 떠오른 부르조아 계층의 이익만을 지켜줌으로서 사회악을 만들어 낸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Dickens 역시 중산층으로서의 계층상승에 성공한 사람으로서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였고, 이런 생애적 특성이 끝에서 Bounderby나 Bitzer에 게 어떤 벌을 가하기를 회피하게 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Dickens는 어린시절 가정의 재정적 문제로 인해 교육을 중도에 포기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다. 그 곳에서 그는 인간적인 모욕도 느꼈고 성공에 대한 집착도 생겼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Bitzer가

그의 초상일 수도 있다. Dickens는 그의 작품을 통해서 유년기의 비순수성이나 공리주의적 인간관에 대한 비판을 가했지만 이것은 이기적인 세상과 자신에 대한 비판일 수도 있다.

Dickens는 열악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감성의 풍요로움을 잃지 않는 서커스단과 이성교육을 받았지만 감성을 지닌 Sissy를 통해 바람직한 인간형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서커스단원들은 사실만이 정답이 되는 네모난 세상에서 등가물의 원칙인 시장거래의 원리에 따르는 시대흐름을 따르면서도 그 속에서 그들의 본능이나 감성 그리고 인간적인 순수함을 잃지 않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Bentham의 양적 공리주의를 비판한 J. S. Mill은 우리에게 감성과 이성을 조화시킬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고,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더불어 공동체의 이익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issy을 비롯한 서커스단원들은 그들에게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순수성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설사 비평가들이 비난하듯 Dickens가 만들어내 동화적 상상력의 산물일지라도 삭막한 사회에 소금이 되는 존재라는 것은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I. Text :

Dickens, Charles. *Hard Times*. Ed. George Ford & Sylvere Monod.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90.

### II. Secondary Sources

- 근대영미소설학회. 『19세기 영국소설의 이해』. 서울: 민음사, 1998
- 김종철. 「『어려운 시절』의 민중성」 『서구 리얼리즘 소설 연구』. 백낙청 엮음.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2.
- 노명식. 『자유주의 원리와 역사』. 서울: 민음사, 1992
- 박지향. 『영국사:보수와 개혁의 드라마』. 서울: (주)까치글방, 1997.
- 야나기, 히사오. 『교육사상사: 생활, 노동, 교육』. 임상희 역. 서울: 백운서당, 1985.
- 칼 마르크스. 『자본론-上』. 김수행 역. 서울: 비봉출판사, 1989.
- 황경식. 『사회정의의 철학적 기초』.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5.
- Carnoy, Martin. 『교육과 문화적 식민주의』. 김결상 역. 서울: 한길사, 1980.
- Hobsbawn, Eric J. 『혁명의 시대: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박현채, 차명수 역. 서울: 한길사, 1986.
- Meakin, David. *Man and Work: Literature and Culture in Industrial Society*. 『인간과 노동: 산업사회에 있어서의 문학과 문화』. 이동하 역. 서울: 한길사, 1982.
- Richetti, John. *Columbia History of British Novel*. 『영국소설사』. 근대영미소설학회. 서울: 신아사, 2000.

- Andrews, Malcolm. *Dickens and the Grown-Up Child*. London: The Macmillan Press Ltd., 1994.
- Arac, Jonatan. *Commissioned Spirits: Dickens and Melville: The Shaping of Social Motion in Dickens, Carlyle, Melville, and Hawthorne*. New Brunswick, N. J.: Rutgers UP, 1979
- Arneson, Richard J. "Benthamite Utilitarianism and Hard Times." *Philosophy and Literature* 2. (1978)
- Daldry, Graham. *Charles Dickens and the Form of the Novel*. Kent: Croom Helm, 1987.
- Forster, John. *The Life of Charles Dickens*. Vol. II. London: Chapman and Hall, 1876.
- Grant, Allan. *A Preface to Dickens*. New York: Longman Group, 1984.
- Hazlitt, William. "Project for a New Theory of Civil and Criminal Legislation." in *Complete Works*, Ed. P. P. Hove, Dent, 1933, Vol. 19.
- Hobsbaum, Philip. *A Reader's Guide to Charles Dickens*. London: Thames and Hudson, 1981.
- House, Humphrey. *The Dickens World*. London: Oxford UP., 1941.
- Langland, Elizabeth. *Society in the Novel*.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4.
- Leavis, F. R. and Q. D.. *Dickens the Novelist*. Singapore: Penguin Books, 1983.
- Page, Norman. *A Dickens Companion*. London: The Macmillan Press, 1984.
- Peck, John. Ed. *David Copperfield and Hard Times*. London: The

Macmillan Press, 1995.

Slatet, Michael. *Dickens and Women*. London: J. M. Dent & Sons, 1983.

Williams, Raymond. *From Dickens to Lawrence*. London: Paladin, 1974.



<Abstract>

Criticism on Utilitarian Education represented in *Hard Times*

Ko, Min-Sook

English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Yang, Young-Soo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tudy Charles Dickens's *Hard Times*(1854) with a view that Utilitarianism which governed Victorian English Society had negative influence on Education.

It particularly shows through analysis of characters that liberal humanity pursued by Utilitarianism based on materialism and individualism caused moral corruption and loss of human nature and as a substitution, proposes John Stuart Mill's human and liberal consideration.

J. S. Mill criticizes Bentham for asserting that every human behavior is governed by the principle of pleasure and pain, that everyone is bound to pursue pleasure. He also adds that Bentham doesn't know that the greatest hope of human life is to be completed by the liberated personality and fundamental desire of human beings.

To say that liberty is noble is not because it ensures "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 but it is conditioned to harmonize with the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2.

individual ability and character as a whole.

J. S. Mill's consideration is found in *Hard Times* through investigation about the contemporary social background and character's way of life.

The utilitarian problem of education is proposed in introduction.

The second part examines the working-class people's familiarity with educational ideology suited to industrial society, which also domesticates children in school and family.

The third part examines various negative effects of utilitarian education. Louisa, Tom and Bitzer are problematic characters who suffer from the results of utilitarian education.

The fourth part deals with pure humanity and morality which have disappeared in Coketown. Sissy and Sleary's Horseriding make an appearance as a kind of lighthouse which enlightens the dark. Dickens shows the harmony of sensibility and reason through Sissy.

